

대학생이 느끼는 절망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Effects of College Students' Hopelessness upon Their Happiness: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서인균, 이연실
신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n-Kyun Seo(babybandit@hanmail.net), Yon-Sil Lee(ezup97@daum.net)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느끼는 절망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학생 7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방법은 빈도분석, t-test, ANOVA,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절망감은 행복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절망감과 사회적 지지를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절망감은 행복감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절망감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대학생의 정신건강 향상과 사회적 지지 같은 긍정적 기제 마련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 중심어 : | 절망감 | 행복감 | 사회적 지지 |

Abstract

The present study has the purpose of investigat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which college students may feel in the process of their emotional transfer from hopelessness to happiness.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by distributing questionnaires to 734 students enrolled in the 4-year-course colleges located in Jeollabuk-do. Frequency analysi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process the data collected from questionnaires. Major outcomes of the analyses could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hopelessness turned out to reduce happiness. Second, from the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 in which happiness was set as a dependent variable and hopelessness and social support were input gradually, it was learned that hopelessness affected happiness negatively (-) while social support exercised impact in the positive (+) direction as hopelessness had influence on happines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with a view to prepare positive mechanism such as promotion of college students' mental health and social support.

■ keyword : | Hopelessness | Happiness | Social Support |

I. 서론

OECE 가입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최하위계층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 우리나라 대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의 행복수준을 분석한 결과 10점 만점에 6.84점으로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경우 학업문제, 진로, 취업, 대인관계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행복지수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3][4] 특수한 시기의 경험을 하는 단계로서 대학생의 행복감 문제는 타 생애주기에 비해 보다 차별화되어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으며, 한국사회 청소년층 집단의 낮은 행복지수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대학생들의 낮은 행복지수와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는 미래 한국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향후 우리사회의 방향성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5].

행복(happiness)은 모든 개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며, 이는 모든 개인이 열망하는 바이기도 하다[6]. 특히 대학생이 행복을 느끼는데 있어 성장기와 그 이후 삶의 가족생활의 영향력은 간과될 수 없으며, 대학생들의 행복감은 이후 성인기와 노년기의 성공적인 적응의 발판 도약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발달단계상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청년기 단계의 대학생의 행복이라는 키워드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크게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족적·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으며[7], 이를 위해 행복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행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행복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요인들과 행복을 구성하는 변인들 간의 조합적인 관계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의미가 있으며, 행복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감정까지를 포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8].

이와 관련하여 행복감을 연구하는 일각에서는 행복의 예측요인으로 그 무엇보다도 심리적 요인들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내적 성격특성 중 하나인 스트레스와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변인을 언급하였다. 조혜정은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취업스트레스가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복감의 부정적 영향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손꼽았으며[9],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연구[10]에서도 우울이라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행복감의 주요한 예측요인으로 강조하였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우울증의 아형으로 제안[11] 받고 있는 절망감(hopelessness)요인은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변인으로 우울증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어지고 있는데, 절망감과 관련된 우울증 이론을 검증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임상(臨床)의 비환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을 예측하는데 있어 부정적 감정요인으로 작용하는 절망감이라는 심리적 요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절망감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기대로 우울증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증상을 의미하며[11], 절망감을 모든 불유쾌한 정서적 상태로[12], 자신이 지나치게 조정되어 자기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감각을 의미하는 정서 상태를 정의 내려[13]지고 있다.

절망감 요인과 행복감과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지만, 이들과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절망감 변인과 행복감을 살펴본 연구는 있었지만, 절망감이라는 부정적 심리요인과 비슷하게 분류되어지는 우울과 스트레스라는 간접변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우울의 경우 절망감이 우울증의 한 가지 아형으로 분류되어지고 있다는 점[11]을 들 수 있으며, 스트레스 변인의 경우 절망감을 유발시키는 촉발변인으로 분류되어진다는 선행연구[14][15]의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간접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절망감은 우울증의 아형으로 분류되어져 우울증과 행복감과 관련된 연구[14][16][17]등이 있으며, 우울과 함께 대표적으로 분류되어지는 또 다른 부정적 정서요인인 스트레스와 행복감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9][18-21] 주 요하게 들 수 있다.

한편, 행복한 인간발달과 건강한 삶을 위해 절망감을

유발시키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하고 이를 중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몇몇 연구들은[20][23] 절망감의 감소에 효과적인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강점 등을 제시하였다. 이중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절망감을 완화시켜주는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대표되어 지는데, 사회적 지지가 감소하면 우울감 및 절망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은[22][24][25] 사회적지지 변인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라는 해로운 영향에서 개인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매커니즘으로[26], 인간의 부정적인 심리적 문제를 완화시키며,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얻는 기회를 가지게 하는 중요한 조절 변인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인의 중심으로 하여 절망감과 행복감과의 관계를 각각 살펴본 아래의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변인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즉,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행복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8]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나 문제에 있어 행복감과의 중재역할을 한다고 밝히며, 부모나 또래의 지원과 같은 사회적 지원이 심리적 안녕감 및 생활만족과 같은 행복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친구와 같은 사회적 지지는 전 생애를 걸쳐 행복감의 중요출처가 되며[27], 부모의 지원이나 가족의 지지는 삶의 질을 높이고[28],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29]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절망감과 사회적 지지를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30-32]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절망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강조되어지고 있으며, 국외에서 진행된 선행연구[33]에서도 가족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는 대상자들의 부정적 심리상태를 낮추고 긍정적 심리상태를 높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는 등 사회적 지지의 완충적인 역할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행복지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행복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행복감을 저해하거나 혹은 청년기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행복감과 관련한 부정적 심리요인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절망감은 청년기 행복을 촉진하기 위해 완화시켜야 하는 변인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부정적 심리요인인 절망감이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가 이러한 개인의 절망감 특성과 조절하거나 완충하여 행복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절망감과 행복감과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며, 사회적 지지가 이들 변인간의 관계에서 조절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혀진 바도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 시기의 다양한 경험에 따른 절망감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심리적·사회적 기제를 확인하고, 이를 강화하는 사회복지실천방안 마련과 청년기 이후 성인기의 행복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절망감

절망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이다[34]. 즉,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즉 자신이나 어느 누구도 불행이나 고통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을 의미한다[35].

절망감은 자신에게 벌어진 실패감, 의기소침, 좌절감, 비참함, 불행 등을 바꿀 수 없다는 부정적인 신념으로[36], 절망감 이론을 제안한 Beck에 의하면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와 믿음을 의미하는 절망감은 우울증의 인지적인 측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절망감과 우울증의 밀접한 관련성을 제시하였다[37]. 이후 이루어진 종단연구 등을 통해 좀 더 발전하게 되었는데 절망감 변인은 주로 대학생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38]. 대표적으로 Metalsky, Joiner, Hardin과 Abramson[54]는 대학생의 시험 실패라는 부정적 생활 사건에 의해 유발되는 우울한 기분을 절망감 이론으로

설명하였으며, 실제 국내에서도[38] 절망감 우울증의 인지취약성 요인에 관한 전향적 연구를 통해 절망감 이론에서는 부정적 생활사건을 경험할 때 우울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인지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절망감 우울증이 유발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국내에서의 초기 절망감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일반인이 아닌 임상집단의 중증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표적으로 암환자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지지를 함께 살펴본 연구[31][39-41]나 혹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42]등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절망감 변인이 스트레스적인 생활경험과 관련이 많다는 근거아래[15][26]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등 임상적 요인으로만 활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범위에까지 널리 활용되어지게 이르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절망감 요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절망감 변인과 비슷하게 분류되어지거나 관련 있는 변인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는 근거 아래 우울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심리 요인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절망감과 관련된 초기 연구들은 임상 군(群)이라는 특정집단에 집중되어져 다양한 연구대상과 연구영역의 범위가 활발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2. 대학생의 절망감, 행복감, 사회적 지지

지난 2014년 9월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서는 한국 성인 8명 중 1명이 최근 1년 사이에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대한민국 청소년의 30~40%가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슬픔과 절망감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절망감 지수가 높은 이유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의한 것이며, 이는 행복감에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취업이나 가정환경 및 대인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요인 등이 가중되어 절망감을 일으키게 되며, 이는 다시 낮은 행복지수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 시기는 학업중심의 중고등학교 시기를 벗어나 다양하고 자기주도성을 요구하는 학교환경으로의 급격한 전환과정을 경험하게 되며, 수많은 도전과 과제가 주어지는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된다[8]. 대학생들의 경우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과 우울을 경험하게 되어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다시 삶의 만족감인 행복을 떨어트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학생 시기의 성공적인 적응요인이자 삶의 만족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인 행복감을 긍정적으로 작용시키고, 행복감을 약화시키는 원인변수인 절망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완충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근거로 대학생의 가족스트레스와 행복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살펴본 연구[8]에서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이 행복을 느끼는데 있어 위로와 격려 등의 내용을 통해 행복에 중요한 결정적 기반을 제공하며,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작용이 행복에 어떻게 작용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행복감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변인으로서의 완충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연구[18]를 통해 사회적 지지의 절망감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의 역할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사회적 지지는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절망감과 관련한 상황에서도 중요한 대처자원으로 작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행복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43-45]에서 강조되어진 바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감은 이들의 삶에 상당하고 다양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으며, 개인의 행복감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행복감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은 인간발달을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행복감과 관련한 대다수의 연구는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44]. 더불어 절망감과

관련된 연구 역시 행복감과 관련하여 상대변수로 적용되어 연구되어진 바 없으며, 절망감 연구영역의 경우 아직까지도 임상집단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이 두 변인과의 관계에서 절망감의 완충역할을 해주는 조절변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며, 절망감을 약화시켜 인간의 기본적 욕구마련인 행복감을 증진시켜야 할 필요성을 연구한 경험적 연구 마련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절망감과 행복감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절망감을 완충시키는지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검증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느끼는 절망감 정도에 따라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절망감과 행복감에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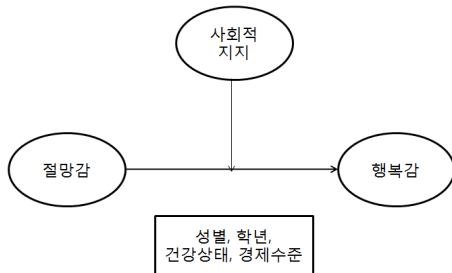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절망감은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절망감과 행복감 사이에 정(+)적인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라북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4개 대학교를 임의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대학교의 교수와 시간강사의 협조 하에 일반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듣는 대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자가 기입식 집합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방식은 임의표집으로 대표성을 확보하기 각 대학교당 200부 씩 할당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800부 중 무응답 및 응답이 불성실한 66부를 제외한 734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대학생이 느끼는 절망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변수로서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보이는 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되어진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대상과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을 잘 측정할 수 있도록 찾아 사전검사 후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3.1 절망감

자살위험성예측척도(SPS: Suicide Probability Scale)는 Cull & Gill[46]의 Suicide Probability Scale을 고효진, 김대진, 이홍표[47]이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정 개발한 도구로써 14세 이상 대상자의 자살위험성을 평가하는 자기보고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31 문항으로 모두 Likert척도(4점)로 구성되었다. 자살위험성은 자살생각 5문항, 부정적 자기평가 10문항, 적대감 5문항, 절망감 11문항의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절망감 11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6$ 이었다.

3.2 행복감

행복감 척도는 Lawton[53]이 개발한 주관적 행복감으로 P. G. C. 사기 척도(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를 김영우[48]가 번안하여 사용한 수정판 척도를 이지연[49]이 대학생에 맞게 재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문항 5개, 부정문항 12개 총 17개 문항이며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

다. 긍정적인 항목을 택하면 1점을 부여하고, 부정적인 항목을 택하면 0점을 부여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들은 역산처리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765이었다.

3.3 사회적 지지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황윤경[50]이 박지원[51]의 사회적지지 척도를 수정하여 표준화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25문항으로 모두 Likert척도(5점)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정보적지지(7문항), 정서적지지(6문항), 물질적지지(6문항), 평가적지지(6문항) 4개 영역을 나누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총합만을 사용하였다. 총 사회적 지지의 Cronbach's α 계수는 .967이었다.

3.4 인구사회학적 변인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성별, 학년, 나이, 건강상태, 경제수준에 대해 측정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PASW Statistic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연구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자료의 정규성 또는 이상치를 검토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절망감, 행복감,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위계적 회귀분석 시 연구에 사용된 제 요인간의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절망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인구사회학적특성(성별, 학년, 건강상태, 경제적 수준)과 절망감, 사회적 지지를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의 투입에 있어 모형 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을 투입하였고, 모형 2에서는 인구사회학적특성과 절망감만을 투입하였으며, 모형 3에서는 인구사회학적특성과 절망감, 사회적 지지를 동시에 투입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과 영향력 및 모형의 설명력을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은 여자 61.0%, 남자 39.0% 이었으며, 학년은 3학년 35.6%, 2학년 24.4%, 1학년 21.0% 4학년 16.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건강하다 57.9%, 보통이다 22.5%, 건강하지 않다 11.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수준은 중 74.5%, 하 20.8%, 상 4.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절망감은 평균 19.73점이며 표준편차는 5.112이다. 행복감은 평균 10.08점이며 표준편차는 3.612이다. 사회적 지지는 평균 92.94점이며 표준편차는 15.61이다. 각 주요변수들의 정규성을 왜도와 첨도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왜도는 절대값 3미만, 첨도는 10미만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들이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734)

변수명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286	39.0			
	여자	448	61.0			
학년	1학년	171	23.3			
	2학년	179	24.4			
	3학년	261	35.6			
	4학년	123	16.8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다	84	11.4			
	보통이다	225	30.7			
	건강하다	425	57.9			
경제수준	상	34	4.6			
	중	547	74.5			
	하	153	20.8			
변수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절망감	11	43	19.73	5.112	.772	.450
행복감	1	17	10.08	3.612	-.358	.456
사회적 지지	25	125	92.94	15.61	-.210	-.624

2.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절망감, 행복감, 사회적 지지 비교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절망감, 행복감,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절망감은 성별, 건강상태, 경제수준, 행복감은 건강상태, 경제수준, 사회적 지

지는 학년, 건강상태, 경제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p < .05$) 차이가 나타났다.

절망감은 여자($M=20.41$)가 남자($M=18.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t=-4.574^{***}$),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않다($M=21.62$)와 보통이다($M=20.88$)일수록 건강하다($M=18.7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0.278^{***}$). 경제수준은 하($M=21.66$), 중($M=19.33$), 상($M=17.50$)순으로 절망감이 높게 나타났다($F=16.491^{***}$). 행복감은 건강상태가 건강하다($M=10.79$)가 보통이다($M=9.15$)와 건강하지 않다($M=8.9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F=20.875^{***}$), 경제수준은 상($M=11.37$), 중($M=10.30$), 하($M=8.99$)순으로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F=10.805^{***}$). 사회적 지지는 4학년($M=94.98$)과 3학년($M=95.06$)이 2학년($M=91.28$)과 1학년($M=89.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F=5.080^{**}$), 건강상태가 건강하다($M=95.59$) 일수록 건강하지 않다($M=89.51$)와 보통이다($M=89.2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5.096^{***}$). 경제수준은 상($M=101.0$)이 중($M=93.10$)과 하($M=90.28$)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961^{**}$).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절망감, 행복감, 사회적 지지 비교분석 (N=734)

특성	구분	절망감			행복감			사회적 지지		
		평균	표준 편차	t/f (p)	평균	표준 편차	t/f (p)	평균	표준 편차	t/f (p)
성별	남자	18.66	4.592	-4.574	11.00	3.485	5.612	92.77	16.06	-2.47
	여자	20.41	5.312		9.49	3.573		93.06	15.34	
학년	1학년	19.64	4.637	1.226	10.09	3.622	1.556	89.99 _a	15.33	5.080
	2학년	19.50	4.930		9.99	3.536		91.28 _a	15.99	
	3학년	19.57	5.523		10.38	3.707		95.06 _b	15.61	
	4학년	20.53	5.079		9.54	3.472		94.98 _b	14.67	
건강 상태	건강	21.62 _b	6.048	20.278	8.96 _c	4.238	20.875	89.51 _a	16.02	15.09
	보통	20.88 _b	4.840		9.15 ^a	3.318		89.22 _a	15.77	
	건강	18.75 _c	4.824		10.79 ^b	3.464		95.59 _b	14.93	
경제 수준	상	17.50 _a	4.259	16.491	11.47 ^c	3.532	10.805	101.0 _b	15.99	6.961
	중	19.33 _b	4.991		10.30 ^b	3.583		93.19 _a	15.13	
	하	21.66 _c	5.214		8.99 ^a	3.404		90.28 _a	16.61	

* $p < .05$, ** $p < .01$, *** $p < .001$

3. 주요 변수 상관관계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주요변수들에 대한 다중공선성을 검토하기 위해 절망감, 행복감, 사회적 지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모든 변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p < .05$)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망감은 행복감, 사회적 지지와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는 절망감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아짐을 의미하고,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절망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행복감과 사회적 지지는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 < .05$),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절망감, 행복감, 사회적 지지간의 상관계수가 0.7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제 변수들과 자살생각과의 상관관계

	절망감	행복감	사회적 지지
절망감	1		
행복감		1	
사회적 지지			1

*** $p < .001$

4. 절망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학년, 건강상태, 경제수준), 절망감, 사회적 지지를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학년, 건강상태, 경제수준)과 절망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변수의 투입에 있어 모형 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하고, 모형 2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절망감을 동시에 투입하였으며, 모형 3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추가로 투입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 및 영향력과 모형의 설명력을 알아보다.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 절망감, 행복감, 사회적 지지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모형2		모형3	
	B	β	B	β	B	β
(상수)	6.270***		17.759***		14.469***	
성별 (남=0)	-1.569***	-.212	-.737***	-.100	-.796***	-.108
학년	.045	-.013	.032	.009	-.051	-.015
건강 상태	1.049***	.201	.381**	.073	.279*	.053
경제 수준	1.248***	.165	.295	.039	.218	.029
절망감			-.446***	-.631	-.418***	-.592
사회적 지지					.036***	.157
R ²	.115		.466		.488	
Adj. R ²	.110		.462		.483	
F(p)	23.643(p=.000)		126.930(p=.000)		115.293(p=.000)	

* α .05, ** α .01, *** α .001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모형 1에서는 성별($\beta = -1.569^{***}$), 건강상태($\beta = 1.049^{***}$), 경제수준($\beta = 1.248^{***}$)이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모형 1의 설명력은 11.0%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절망감을 동시에 투입한 모형 2에서는 성별($\beta = -.737^{***}$), 건강상태($\beta = .381^{**}$), 절망감($\beta = -.446^{***}$)이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모형 2의 설명력은 46.2%였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절망감, 사회적 지지를 동시에 투입한 모형 3에서는 성별($\beta = -.796^{***}$), 건강상태($\beta = .279^*$), 절망감($\beta = -.418^{***}$), 사회적 지지($\beta = .036^{***}$)가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3의 설명력은 48.3%로 모형 2보다는 2.1% 증가하였다. 즉 남자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절망감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행복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절망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소재한 4년제 대학교 학생 7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방법은 기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자료의 정규성 또는 이상치를 검토하였다. 또한 절망감, 행복감,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 ANOVA를 실시하였으며, 회귀분석 시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변수들 간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에서는 위의 연구결과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공통적인 양상을 보이며, 분명한 특성을 보이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주요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첫째,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절망감을 투입한 결과 행복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문제 1을 지지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우울과 행복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7]서 우울은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연구대상은 다르지만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행복감과 함께 살펴본 연구[21]에서도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 시기의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취업이나 학업성취 및 진로결정과 같은 절망감 요인을 완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 및 행복요인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침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다양하게 요구되어진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이다.

둘째,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절망감, 사회적 지지를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절망감은 행복감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절망감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절망감이 행복감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사회적 지지는 완화시키는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문제 2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우울과 행복감 간의 관계를 매개모형으로 검증한 연구[10]에서 우울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관계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다양한 문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자책하고 우울해 하는 대학생들의 경

우 타인과의 관계와 타인과의 친숙과 신뢰감이 매우 중요하며 우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와 그 맥락을 함께하는 결과이다. 또한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과 가족스트레스와 행복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7]에서도 학대나 스트레스 요인이 행복에 유의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 행복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대학생 시기의 취업이나 학업 및 대인관계와 같은 다양한 환경적·스트레스 요인을 포함하는 절망감 요인이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사회적 지지라는 중재요인이 존재한다면 이를 상쇄시키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기 행복감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대학생 시기에만 겪을 수 있는 특정문제 예컨대 취업이나 학업성과 및 진로문제와 같은 현실적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이나 학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나 지지체계가 현실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생 시기의 사회적지지 자원을 향상시키고 보다 풍요로운 사회적 관계와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개입 방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행복을 촉발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현실적인 실천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바이다.

논의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절망감이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정서·물질·평가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를 지원받는가에 따라서 행복감이 증가될 수 있고 감소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첫째, 청소년기 대학생의 행복감, 절망감 관련 연구가 부족한 현 시점에 관련 연구영역의 확장에도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절망감과 행복감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더 나아가, 그러한 관계에 사회적 지지가 조절변인으로서의 역할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점에 있다. 셋째, 또한 절망감 변인은 기존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위험요인의 지표가 되는데 이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완충적인 역할을 했다고 살펴봤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아진다. 넷째, 절망감과 행복

감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했고, 특히 사회적 지지가 절망감에 대한 보호요인인 것을 검증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 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지닌다. 향후에는 대학생 정신건강에 관해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확률적 표집에 근거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에 근거하여 검증하였기 때문에 절망감, 행복감, 사회적 지지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횡단적 자료를 통하여 인과관계에 대해 추론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52],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를 통해 절망감, 행복감, 사회적 지지간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변인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자료는 모두 자가 기입식 설문지에 의한 것으로 도구의 특성상 연구대상자가 방어적 태도로 응답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문항에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임상적인 면담을 포함한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도구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넷째, 절망감 변인은 초기에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중재 요인에 있어서 원인변수로 많이 연구되어져 왔는데, 최근 들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절망감과 관련된 영향요인과 예측요인을 비롯한 다양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반적인 대학생들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우울이나 절망감 수준이 높은 임상집단에게까지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를 좀 더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이러한 임상집단까지도 포함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참고 문헌

- [1] 이내찬, "OECD 국가 삶의 질 구조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2권, 제2호, pp.5-40, 2012.
- [2] 송창용, 손유미, "청소년의 행복결정요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p.195-215, 2013.
- [3] D. L. Coffiman and T. D. Gilligan, "Social support, stress and self-efficacy : Effects on student's satisfaction," Journal of collage student Recreation, Vol.4, No.1, pp.53-66, 2002.
- [4] R. Loeb and P. Magee, "Change in attitudes and self preceptions during the first two years of college," Journal of Collage Student Development, Vol.33, pp.348-355, 1992.
- [5] 이영일, "연기전공 대학생의 수업 참여동기, 연기 표현성,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6권, 제1호, pp.167-178, 2016.
- [6] B. S. Frey and A. Stutzer, "What Can Economists Learn from Happiness Resear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40, No.2, pp.402-435, 2002.
- [7] 김민경, "대학생의 우울, 감사 및 낙관성과 행복과의 관계," 청소년 문화포럼, 제28권, pp.7-31, 2011a.
- [8] 김민경, "대학생의 행복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10호, pp.1-34, 2011b.
- [9] 조혜정,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1호, pp.157-184, 2013.
- [10] 김현수, 유스티븐첼희, 유선미, "이공계 분야 대학생의 우울과 행복감 간 주체성 : 관계성의 매개 모형 검증,"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제4권, 제1호, pp.108-118, 2012.
- [11] 박영남, "절망감 우울증 : 의미 있는 우울증의 아형인가?," 신경정신의학, 제44권, 제4호, pp.425-431, 2005.
- [12] G. Simopoulos and Subhansh, Inamdar, "Developmental aspects of Hopelessness," Adolescence, Vol.14, No.53, pp.233-239, 1979.
- [13] J. S. Schneider, "Hopelessness and helplessness, Journal of Psychology," Nursing & Mental Health Services, Vol.18, No.3, pp.12-21, 1980.
- [14] 김현순, 스트레스, 절망, 우울과 자살생각간의 구조적 관계 : 노인과 청소년의 차이 비교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15] 서인균, 이연실,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우울 및 절망감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제12권, 제1호, pp.117-147, 2015.
- [16] 김귀례, 간호사의 자아존중감, 몰입, 우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17] 김유식, 여가스포츠 참여 퇴직 남성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우울 및 행복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18] 박지혜,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19] 김미령, "노인의 스트레스와 성인자녀의 지지가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32권, pp.1-27, 2012.
- [20] 박미혜, 영재학생의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21] 이상희, 김연화, 고진선,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0권, 제3호, pp.147-174, 2011.
- [22] 배지연, "노인의 자살생각에 관한 인과모형," 사회과학논문집, 제23권, 제2호, pp.343-375, 2005.
- [23] 김현순, 김병석,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제27권, 제1호 pp.23-37, 2007.
- [24] 허준수, 유수현,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지, 제13권, pp.7-35, 2001.
- [25] 서화정,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사업 개입전

- 략 : 노인자살의 영향요인분석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26] 최형업, 채현탁, 송인옥, "자이존증감과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스트레스적 생활경험과 절망감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제43권, pp.183-202, 2008.
- [27] S. Lyubomirsky, L. King, and E. Diener,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Vol.131, pp.803-855, 2005.
- [28] 안지영, 인간관계,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 중학생과 그 부모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29] 허승연,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30] 김주연, 김계하, "요양병원 노인 환자가 지각한 절망감과 가족지지," 노인간호학회지, 제16권, 제2호, pp.151-159, 2014.
- [31] 김현실, 조미영, "중환자가 지각한 가족지지와 절망감과의 관계연구,"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제22권, 제4호, pp.620-635, 1992.
- [32] 김양순, 여성암환자가 지각하는 가족지지와 절망감과의 관계,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33] K. Asberg and K. Renk, "Substance Use coping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rauma symptoms and substance use consequences among incarcerated females with childhood sexual abuse histories," Substance use and misuse, Vol.47, No.7, pp.799-808, 2014.
- [34] A. T. Beck, A. Weissman, D. Lester, and L. Trexler, "The Measurement of pessimism : The hopelessness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42, pp.861-865, 1974.
- [35] D. A. Brent, J. A. Perper, and C. J. Allamn, "Alcohol, firearms, and suicide among youth,"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257, pp.3369-3372, 1987.
- [36] 홍나미, 부모학대와 또래괴롭힘이 청소년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 대인관계내재화와 절망감의 매개경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37] Beck At.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p.273-290, 1967.
- [38] 유정현, 절망감 우울증의 인지취약성 요인에 관한 전향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39] 박점희, 이현주, 김현미, 류은경, "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불안, 절망감 및 가족지지와의 관계," 기본간호학회지, 제4권, 제1호, pp.147-162, 1997.
- [40] 이정희, 척수손상 환자가 지각하는 절망감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41] 최연희, "만성 신부전 환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자이존증감 및 절망감의 관계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25권, 제3호, pp.549-561, 1995.
- [42] 주현순, 노인의 일상생활능력과 절망감과의 관계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43] 김홍순, 청소년 행복에 관한 감사조절모형의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44] 안도희, "한·중 청소년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제50권, 제1호, pp.227-255, 2012.
- [45] 박혜숙, "대학생의 행복정도와 양생실천정도와 의 관련성," 동서간호학연구지, 제18권, 제1호, pp.31-39, 2012.
- [46] J. G. Cull and W. S. Gill, "Suicide Probability Scale(SPS) manual," Los Ang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1988.
- [47] 고효진, 김대진, 이홍표, "청소년 자살위험성 예측척도의 타당화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39권, 제4호, pp.680-690, 2000.
- [48] 김영우, 사회적 지원망이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할일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49] 이지연, 성인 애착과 대학생의 우울과의 관계 : 낙관성과 비관성의 매개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50] 황윤경, 청소년 또래집단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 사회적 성숙도와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51] 박지원,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52] D. A. Cole and S. E. Maxwell, "Testing mediational models with longitudinal data questions and tips in the us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112, No.4, pp.558-577, 2003.
- [53] M. Lawton, "The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 A revis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30, No.1, pp.86-89, 1975.
- [54] G. I. Metalsky, Joiner Te., Joiner, Hardin and L. Y. Abramson, "Depressive reactions to failure in a naturalistic setting : a test of the hopelessness and self-esteem theories of depression," Journal of Abnorm Psychol, Vol.102, pp.101-109, 1993.

이 연 실(Yon-Sil Lee)

정회원



- 2012년 2월 :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문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신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아동가족, 노인청소년 심리

저 자 소 개

서 인 균(In-Kyun Seo)

정회원



- 2010년 8월 :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신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노인학대, 노인자살, 장애인복지